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국제부  
발 신 **군산·전북지역 13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106개 단체)**  
(담당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채민(010-8638-0214) /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010-5574-8925)  
제 목 [보도자료] 미얀마 군부 인사와 면담한 군산시의회 규탄 공동성명 발표  
날 짜 2024. 09. 10. (총 4 쪽)

## 보도자료

미얀마 군부와 우애를 증진한다는 군산시의회를 규탄한다!  
민간 차원 교류라는 변명 말고 즉각 사과하라!

**군산·전북지역 시민사회와 미얀마지지시민모임 공동성명 발표**

1. 지난 8월 19일, 군산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 미얀마 대사와 국방무관 부부가 군산시의회를 방문해 우애 증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잔혹한 전쟁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미얀마 군부 측 인사인 탄신 주한 미얀마 대사 및 미얀마 국방무관과 면담을 진행한 것은, 군산시의회가 미얀마 군부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2. 그럼에도 군산시의회는 지난 9월 4일, 이 면담과 관련된 재한 미얀마 이주민들의 질의에 대해 ‘민간 차원의 교류였을 뿐’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군산 및 전북 지역의 13개 시민사회단체와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전국 106개 단체)은 공동으로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군산시의회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3.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붙임1. 공동성명서

■ 붙임2. 관련 보도

## ▣ 붙임1. 공동성명서

미얀마 군부와 우애를 증진한다는 군산시의회를 규탄한다!

민간 차원 교류라는 변명 말고 즉각 사과하라!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지 3년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수천 명의 사망자와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음에도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미얀마 시민들은 지금도 목숨을 걸고 잔혹한 군부와 맞서 싸우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 미얀마 시민들의 투쟁에 한국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한국 국회는 초당적 합의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군산시의회 역시 2021년 3월, 미얀마 군부의 인권탄압을 비판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군산시의회는 지난 8월 19일, 주한 미얀마 탄신 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한국과 미얀마 간의 우애 증진 및 다양한 상호 문화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행했다. 주목할 점은 이 면담에 미얀마 국방무관 부부도 함께 참석했던 것이다. 즉, 군산시의회는 불과 3년 5개월 전에 미얀마 군부를 비판하고도 미얀마 군부의 뜻에 따라 재한 미얀마 이주민들을 탄압하는 미얀마 대사 및 군부 인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다.

군산시의회는 미얀마에 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미얀마 국방무관 부부와 함께 “우애 증진”을 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미얀마 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쳐온 미얀마 시민들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는 군산시의회의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

더구나 군산시의회는 이번 행사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한 한국 미얀마 이주민 공동체에 해당 행사가 ‘민간 차원의 교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이다. 군산시의회의 이러한 해명은 한국에서 고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미얀마

이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냈던 군산시의회가 어떻게 미얀마 군부 인사와 면담을 진행할 수 있냐며 분노하는 미얀마 이주민들에게, 성의 없는 답변을 내놓은 군산시의회의 모습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우리는 군산시 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군산시의회는 주한 미얀마 대사와 국방무관 부부와의 면담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즉각 공개하라!**

**하나, 군산시의회는 미얀마 이주민들의 질의에 대해 ‘민간 차원의 교류’였다는 답변을 해명하라!**

**하나, 군산시의회는 미얀마 군부 인사와의 면담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라!**

만약 군산시의회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계속하여 ‘민간 차원의 교류’였을 뿐이라고 강변한다면, 우리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군산 시민 및 전북 도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군산시의회가 지금이라도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2024년 9월 10일

(사)생명평화마중물, (사)아시아이주여성센터, 군산환경운동연합,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평화바람, 군산평화박물관,  
군산비정규직노동인권센터,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특별자치도당,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총 13개 군산 및 전북지역 정당 및 시민사회 단체)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 ▣ 붙임2. 관련 보도

1. 군산시의회 홈페이지 포토의정활동 “주한미얀마대사 군산시의회방문”  
[군산시의회 \(gunsan.go.kr\)](http://gunsan.go.kr)
2. 김우민 시의회 의장과 우탄신 미얀마 대사 '상호 교류협력 확대' 공감 - 투데이  
[군산 \(todaygunsan.co.kr\)](http://todaygunsan.co.kr)
3. [군산시의회](http://gunsan.go.kr), 미얀마 주한대사 일행 문화교류 - 전북중앙 ([jjn.co.kr](http://jjn.co.kr))
4. [군산시의회](http://gunsan.go.kr), 우탄신 미얀마 주한대사 면담 - 전북연합신문 ([jbyonhap.com](http://jbyonhap.com))